

내용분석을 통한 국내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 연구동향: 2010~2015

최현자 (교수, 서울대 소비자학과)
강지영, 정예원 (박사과정, 서울대 소비자학과)
권정현, 이선우 (석사과정, 서울대 소비자학과)

I. 서론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는 경제주체 중 가계 부분의 재무관리를 다루는 학문영역으로 가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여 소비자복지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최현자, 2010) 개인재무관리 영역이 하나의 독창적인 학문분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개인재무관리의 본격적인 태동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개인재무관리 관련 지식의 창출 및 정보의 생산 등을 목표로 전문가 양성 및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관련 학회의 창립 및 학술지 등이 발행되었다(Schuchardt et al, 2006). 개인재무관리는 경제학을 가계행동을 이해하는데 응용한 가계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현대로 오면서 가계경제학 뿐만이 아니라 재무학, 자원관리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의 이론을 개인재무 영역에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인 응용학문분야로 발전하였으며(최현자, 2010) 개인의 재무복지 증진을 위한 금융소비자로서의 선택 및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까지 포괄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개인재무관리의 연구 대상인 '개인재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경원(2015)은 최근 들어 경제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가계의 저축, 투자, 부채, 위험관리 등 다양한 금융행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경제이론이나 재무이론과는 차별화된 가계금융(household finance)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개인을 둘러싼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이 복잡해지고 재무적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이 완화됨에 따라 경제학이나 재무학에서도 개인의 재무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깊게 개인의 특성 및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나아가 맥락적 관계까지 살펴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금융은 Cambell(2006)이 언급한 것처럼 가계가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수단 및 기제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결코 아니며 기존의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와 별반 다르지 않다(최현자, 2010).

하지만 기존의 가정경제학자나 소비경제학자들이 다루는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와 소위 새로운 학문 분야라고 소개된 가계금융이 실제 연구수행에서 다소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 사실이다. 연구대상은 '개인 재무'로 같지만 연구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개인재무관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재무적 복지 혹은 소비자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경제 정책적 차원의 전략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기여함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연구의 결과 및 함의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분석 방법도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다른 목표를 가진 연구자들과 동일한 대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도전 과제일 수 있다. 이는 학문의 목표가 서로 상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응용학문 분야에서는 연구의 결과로 도출되는 정책적, 교육적, 행동적 함의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개인재무에 대한 관심의 증가 원인으로 언급한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의 복잡화와 합리

성을 가정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의 문제는 다른 학문 분야와 동일하게 개인재무관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로, 연구가 더욱 더 견고하고 촘촘하게 논리적으로 발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인의 재무 복지 증진은 개인의 재무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의사결정의 개선으로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인재무관리에 대한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접근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재무관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인재무관리가 개인의 재무적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동향을 살피고 앞으로 학문분야로써 토대를 탄탄히 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점이 더욱 갖추어 져야 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개인재무관리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국내에서 시기별로 진행되었는데 (최현자, 2010; 최현자 외, 2008; 손상희, 2000; 송인숙, 2000; 박명희, 1999) 이들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Hanna et al(2011); Ji. H. et al(2010); James & Cude(2009); Geistfeld & Key(1986))에 비해 분석 영역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동향 연구와 해외의 동향 연구의 분석 기준을 비교하고 통합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용 분석을 수행해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분석틀을 차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연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어(keyword) 및 적용이론, 연구방법, 연구자 등을 포함하여 이 기간 동안 수행된 개인재무관리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분석대상을 다른 학문분야의 학술지로 확대하여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므로써 실질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새롭게 제기된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와 금융시장환경의 변화들을 반영하여 2010년부터 최근(2015년 상반기)까지의 개인재무관리 연구의 내용과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그동안 개인 재무관리 영역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는 김용준 외(1999), 송인숙(2000), 손상희(2000), 최현자 외(2008), 최현자(2010) 등이 해외에서는 Geistfeld & Key(1986), James & Cude(2009), Ji, H. et. al(2010), Hanna et al(2011) 등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었다(<표 2-1> 및 <표 2-2> 참조).

이들 대부분은 기존에 수행된 개인재무관리 연구 주제의 분류를 시도하였으나 연구 주제를 분류함에 있어서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키워드 분석의 실시 여부이다.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은 저자가 지정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데, Ji, H. et. al(2010)와 Hanna et. al(2011)는 이러한 키워드를 정렬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을 키워드에 기반해 규명하고자 한 반면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정의한 기준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송인숙(2000)은 가계경제와 소비자문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한 후 가계 경제는 ‘소비이론 및 소비 패턴’, 그리고 ‘가계재무 및 상담’의 세부 영역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손상희(2000)는 (1) 소득획득행동, (2) 재무관리행동, (3) 재정복지, (4) 생활표준과 삶의 질로 분류하였으며 최현자 외(2008)는 재무설계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1) 재무설계과정, (2) 소득 및 지출관리, (3)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4) 저축과 투자설계, (5) 은퇴설계와 상속, (6) 재무상담과 교육의 여섯 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최현자(2010)의 연구에서는 (1) 재무상태평가, (2) 재무설계의 실행, (3) 재무복지, (4) 재무교육, (5)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로 개인재무

관리 관련 연구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반해 Hanna et al(2011)은 키워드 분석뿐만 아니라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의 카테고리에 기반해 연구를 분류하고 Garman & Forgue(2003)가 제시한 10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연구를 구분하여 심층적인 주제 분류를 시도하였다.

내용 분석의 범위에 있어 해외 연구들은 주로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반면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복수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를 선별, 분석하였다. 국내의 연구 중에서는 김용준 외(1999)만이 「소비자학연구」라는 단일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송인숙(2000), 손상희(2000), 최현자 외(2008), 최현자(2010)는 「소비자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등 다양한 학술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내용분석의 대상이 된 연구물의 수는 적게는 111편에서 많게는 536편에 이르렀다. 또한 내용분석의 대상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근 10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James & Cude(2009)는 1967년에서 2007년까지, 송인숙(2000)은 1980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는 등 그 기간은 연구자 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내용분석 연구와 국외의 내용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연구자에 대한 비교 여부이다. 국외 연구에서는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eistfeld & Key(1986)는 논문 당 연구자 수의 평균과 연구자의 소속 기관을 비롯해 연구 영역까지 비교 분석하였으며 James & Cude(2009)는 가장 자주 연구물을 게재한 저자를 규명하고 저자의 연구 영역을 조사하였다. Ji, H. et. Al(2010)과 Hanna et al(2011)의 경우에는 가장 자주 연구물을 게재한 연구자를 조사하고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수를 비교하여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여부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최현자 외(2008)에서만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는데 이들은 연구들을 조사연구와 문헌연구, 면접관찰과 기타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조사연구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자료출처까지 살펴보았다. 국외 연구에서는 Ji, H. et. al(2010), Hanna et al(2011) 및 James & Cude(2009) 간에도 구체적인 기준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James & Cude(2009)는 양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 질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 어떤 자료도 보고하지 않은 연구로 구분하였으며 양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에는 기술통계분석, 회귀분석, 기타로 세분하였다. Ji, H. et. al(2010)은 연구데이터를 국가적, 비국가적 자료로 구분하고 연구 데이터의 표집방법과 분석단위까지 조사하였다. 또한 분석방법에 있어서 연구를 질적 연구, 양적 연구, 규범적 연구, 리뷰 및 논평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양적 연구의 경우에는 James & Cude(2009)와 마찬가지로 기술통계분석, 회귀분석, 기타로 세분하였다. 그러나 Hanna et al(2011)은 연구접근법에 따라 규범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구분하고 통계적 방법론과 연구데이터 또한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연구는 연구의 영향력을 살펴본 반면 국내 연구는 이에 대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James & Cude(2009)는 Journal of Citation Reports와 Google Scholar를 기준으로 인용 횟수를 비교하였으며 Ji, H. et. Al(2010)과 Hanna et al(2011) 또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와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를 살펴보고 연구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1> 및 <표2-2>와 같다.

<표 2-1>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본 국내연구

	최현자(2010)	최현자 외(2008)	손상희(2000)	송인숙(2000)	김용준 외(1999)
주제분류	(1)재무상태 평가 - 경제구조와 재무상태 - 재무태도 (2)재무설계의 실행 - 소득과 지출관리 - 부채와 신용관리 - 위험관리와 보험 - 저축과 투자관리 - 은퇴설계와 상속 - 재무관리행동 (3)재무복지 - 주관적 재무복지 - 객관적 재무복지 (4)재무교육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 - 교육효과분석 (5)재무설계/상담서비스	(1)재무설계 과정 (2)소득 및 지출관리 (3)위험관리와 보험설계 (4)저축과투자설계 (5)은퇴설계와 상속 (6)재무상담과 교육	(1)소득획득행동 - 여성취업 - 인적자본투자 - 기타 (2)재무관리행동 - 재무관리일반 - 부채.저축.은퇴준비 - 재무문제 및 대처 (3)재정복지 - 객관적 재정복지 - 주관적 재정복지 - 기타 (4)생활표준과 삶의 질 - 생활표준 - 삶의 질	(1)가계경제 - 소비이론/소비패턴 - 소비이론 - 비목별 소비패턴 - 집단별 소비패턴 - 가계재무 및 상담 - 재무관리 - 재정복지 - 재무설계 및 상담 (2)소비자문제	(1)가계경제 - 소비지출.소비패턴. 가계복지 - 소비자재무 - 가계생산.결혼과 출산.인적자본 (2)소비자보호
연구자료	2000년부터2009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연구」, 「FPR」,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271편	1997년부터2007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201편	1990년부터1999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문화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에 게재된 논문111편	1980년부터1999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게재된 논문420편	「소비자학연구」 창간호(1997)부터9권4호(1998)까지 게재된 논문154편
연구방법		(1)조사연구 - 자료조사: 조사 대상 - 원자료: 1차 자료 - 기타 (2)문헌연구 (3)면접관찰 (4)기타			

<표 2-1>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본 해외연구

	Ji, H. et. al(2010)	Hanna. Et. al(2011)	James & Cude(2009)	Geistfeld & Key(1986)
주제분류	키워드분석 - Hanna(1999) 분류학 - 키워드의 빈도 분석	(1)키워드분석 (2)JEL카테고리 (3)주제: Garman&Forgue(2003)의 10가지 분류	단일제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만을 선별 (1)식품,주류,담배 (2)저축,투자,신용,파산 (3)교통 (4)건강관리,약품,건강보험 (5)주택/주거 (6)의료 (7)품질보증 (8)기타	(1)의사결정과 정보탐색 (2)소비자주의와 소비자운동 (3)소비자교육 (4)직업 (5)소비, 소득, 일반적 경제 문제 (6)정보 획득과 활용 (7)만족/불만족과 불평행동 (8)정책분석, 발전, 평가 (9)제품품질 (10)시장구조와 운영 (11)기타
연구자료	FCP에 1990~1999년 동안 게재된 논문 130편과 2000~2009년 게재된 논문 141편 총 271편	FSR에 게재된 Vol.1~18의 연구물 총 329편	JCA에 1967-2007년 동안 게재된 peer-reveiwed feature 논문 총 536편	JCA에 1975-1979년 게재된 100편, 1980-1984년 게재된 111편, 총 211편을 분석
연구자	(1)가장 자주 연구물을 게재한 저자 (2)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의 수 비교	(1)가장 자주 연구물을 게재한 저자 (2)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의 수 비교 (3)저자의성별	(1)가장 자주 연구물을 게재한 저자 (2)저자의 연구 영역 (3)공동연구물-연구자의Share	(1)논문 당 연구자 수 (2)저자의 소속기관(대학) (3)저자의 연구 영역
연구방법	1)연구데이터 (1) 국가적 vs 비국가적 자료 (2) 표집 방법: 무작위 vs 편의 (3) 분석 단위: 가계 vs 개인 2)분석방법 (1) 질적 연구 (2) 양적 연구 - 기술통계분석/회귀분석 등/기타 (3) 규범적 연구 (4) 리뷰 및 논평	(1)연구접근법 - Normative - Positive (2)통계적방법론 - 기술통계분석 - 회귀분석 등 - 기타 3)연구데이터: 국가적vs비국가적	(1)양적자료를 활용한 연구 - 기술통계분석 - 회귀분석 등 - 기타 (2)질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 (3)어떤 자료도 보고하지 않은 연구	
연구의 영향력	(1)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 (2)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	(1)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 (2)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	가장 많이 인용된 발간물 (1)Journal of Citation Reports 기준 (2)Google Scholar 기준	

III. 연구방법

1.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동향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주제어(keyword)와 더불어 주제분석 및 연구방법, 적용이론과 연구자를 분석틀에 추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주제어(keyword) 및 주제분석

기존의 국내 연구(김용준, 1999; 손상희, 2000; 송인숙, 2000; 최현자 외, 2008; 최현자, 2010)들은 주제를 분류한 상태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얼마나 수행되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Hanna(1999)가 개발한 분류학을 적용하여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은 연구자가 지정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키워드를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살펴 전체적인 연구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제분류의 경우, 최현자(2010)의 분석틀을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최현자(2010)의 경우 (1) 재무상태평가, (2) 재무설계의 실행, (3) 재무복지, (4) 재무교육, (5)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최현자 외(2006)에서 개인재무관리의 영역을 크게 재무설계, 재무상담, 재무교육으로 나눈 것과 일치한다. 다만 '재무상태평가'의 하위 영역에서 '재무태도' 대신 여기에 재무지식과 재무기능을 추가한 '재무역량'으로 수정하였으며 '재무설계의 실행'의 하위 항목인 '소득과 지출관리, 부채와 신용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설계와 상속, 저축과 투자관리, 재무관리행동'은 재무설계뿐만 아니라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의 하위 항목이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2) 재무설계의 실행'을 '(2) 재무관리의 실행'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최근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발생 가능한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재무관리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6) 재무관리 관련 시장 환경을 추가하여 주제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즉 과거에는 개인의 합리성을 가정하여 개인재무관리를 통한 재무복지의 증진이 개인의 역량과 의사결정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며, 다른 경제주체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 맥락에 영향을 받아 개인재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책적·제도적 개입을 통한 개인의 행태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연구 또한 개인재무관리에 포괄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포함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경우 연구접근법과, 연구 대상 및 연구자료수집방법 그리고 분석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접근법의 경우 (1) 질적 연구, (2) 양적 연구, (3) 규범적 연구의 크게 3가지 연구로 분류한 Ji. H. et al(2010)의 분석틀을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최근들어 질적 연구 기법과 양적 연구 기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각 연구 기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혼합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4) 혼합 연구를 추가하였으며 그 이외에 리뷰 및 논평 등을 포함한 (5) 기타 분류를 추가하여 연구를 보다 상세히 분류하고자 하였다. Ji. H. et al(2010)은 JFCP의 2000~2009년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분석 단위가 개인인지 가계인지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였는데 이는 의사결정시 개인과 가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프로세스를 따라야 하므로 연구의 접근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Ji. H.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이

가계인지 개인인지 1차적으로 분류하고 더 나아가 집단 별로 연구대상을 분류하고자 한다. 연구자료수집방법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지(1차자료) 아니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생산한 자료(2차자료)를 활용했는지를 살피고, 1차자료의 경우 자료수집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양적 연구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는지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기본적인 분류의 틀은 홍두승(2000)에 의해 제시된 분류를 수정하여 ① 기술통계분석, ② 분할표, 집단간 비교 및 상관관계분석, ③ OLS 회귀분석, ④ 로짓, 로지스틱 & 프로빗 ⑤ 토빗, ⑥ 요인 분석, ⑦ 경로분석, ⑧ 기타로 분류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최근에 주로 적용된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통해 연구동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적용 이론

이론은 연구를 관통하는 개념적 틀이자 논리적 기반으로 이론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이 현상의 원리와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론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념적 틀(Theoretical Framework)로 기능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의해 이론의 적용이 명확하게 제시된 논문을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적용된 이론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향후 수행될 연구의 개념적 틀 마련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연구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내용분석 연구는 대부분 주제의 분류와 그 변화 추이 등에 집중한 반면 미국 연구의 경우에는 논문의 저자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Ji, H. et. al(2010)과 Sherman(2011)은 가장 빈번하게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를 파악하고 공동 연구와 단독 연구의 비율과 추이를 비교하였다. James & Cude(2009)와 Geistfeld & Key(1986)는 이에 추가적으로 저자의 연구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저자의 연구 영역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단독 저자 및 공동 저자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Geistfeld & Key(1986)는 연구자의 소속 대학 및 기관까지도 연구 내용에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인재무관리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연구자와 공동 연구와 단독 연구의 추이 변화를 살펴본다면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못했던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분석틀을 다음 <표 3-1>에 정리하였다.

<표 3-1> 본 연구의 분석틀

	내용	항목	내용
키워드 분석	연구자 지정 키워드의 재분류	연구 방법	1) 연구접근법 (1) 질적 연구 (2) 양적 연구 (3) 규범적 연구 (4) 혼합 연구 (5) 기타
주제 분류	(1) 재무상태평가 - 경제구조와 재무상태 - 재무역량(태도, 지식, 기능) (2) 재무설계의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과 지출관리 - 부채와 신용관리 - 위험관리와 보험 - 저축과 투자관리 - 은퇴설계와 상속 - 재무관리행동 <p>(3) 재무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재무복지 - 객관적 재무복지 <p>(4) 재무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 연구 - 교육효과분석 <p>(5)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p> <p>(6) 재무관리 관련 시장환경</p>		<p>2) 연구대상(양적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단위: 개인/가계 - 대상 범위: 전계층/노인/중장년층 /대학생/청소년/여성/기타 <p>3) 연구자료수집방법 (양적연구 중 조사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자료: 온라인/오프라인 - 2차 자료: 데이터명 <p>4) 자료분석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기초통계 - 분할표, 집단간 비교 및 상관관계분석 - OLS 회귀분석 - 로짓,로지스틱, 프로빗 - 토빗 - 요인분석 - 경로분석 - 기타
연구자	<p>1) 가장 자주 연구물을 게재한 저자</p> <p>2)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수 비교</p>	적용 이론	<p>1) 이론 적용 여부</p> <p>2) 활용된 이론의 동향</p>

2.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최현자(2010)에서 연구 범위로 설정한 「소비자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문화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이하 FPR) 등의 7개 학술지와 「소비자문제연구」, 「금융소비자연구」, 「금융연구」, 「금융지식연구」, 「보험금융연구」, 「보험학회지」, 「재무연구」, 「증권학회지」로 분석학술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소비자문제연구」의 경우 2007년 12월 28일에 학술지에 등재됨에 따라 연구물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으며 최근 금융소비자 관련 연구도 게재되고 있어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소비자연구」는 2010년 2월 28일에 설립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의 학술지로 개인재무관리 영역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추가된 학술지는 경영학, 경제학 등에서 기업재무나 거시경제 및 이론적인 미시경제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게재하는 학술지이나, 최근 개인재무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물들이 게재되고 있어 개인재무관리에 대한 연구동향을 좀 더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단, 연구의 목적이 개인 및 가계의 재무적 복지의 증진으로 개인재무관리 연구와 궁극적으로 같다고 하여도 연구의 대상이 개인이나 가계가 아닌 기업, 법률 및 정책, 거시변수 등일 경우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학술지에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게재된 논문 중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인 총 276편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각 학술지별 논문편수는 다음 <표 3-2>와 같다.

<표3-2> 학술지별 분석논문편수

	FPR	소비자학 연구	소비문화 연구	소비자 정책 교육 학회지	대한정 회지	한국 가정 관리 학회지	한국 가족 자원 경영 학회지	소비 자 문제 연구	금융 소비 자 연구	금융 연구 등*
논문수 276편 (100.0)	64 (23.2)	43 (15.6)	28 (10.1)	17(6. 2)	5 (1.8)	15 (5.4)	27 (9.8)	16 (5.8)	22 (8.0)	39 (14.1)

IV. 분석결과

1. 주제어(Keyword) 및 주제별 연구성과

1) 주제어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276편의 논문에 수록된 주제어는 총 918개로 연구내용(contents)과 관련된 주제어가 739개이며 연구대상은 91개, 분석방법은 39개, 분석자료 9개, 적용이론 18개 그리고 기타 22개로 나타났다. 주제어 중 가장 자주 언급된 상위 10개의 주제어는 금융소비자(17),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보호(각 11회), 개인연금과 금융이해력(각 10회), 국민연금과 재무관리행동(각 8회), 금융교육과 사적이전 및 재무상담(각 7회)이었으며 3편 이상의 논문에서 언급된 주제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한편 101개의 주제어가 2회 그리고 735개의 주제어가 1회 사용되었다.

<표 4-1> 주제어(Keyword)분석 결과 - 가장 자주 사용된 주제어 및 사용횟수

순위	주제어	횟수
1	금융소비자(1)	17
2	가계부채, 금융소비자보호(2)	11
3	개인연금, 금융이해력(2)	10
4	국민연금, 재무관리행동(2)	8
5	금융교육, 사적이전, 재무상담(3)	7
6	노후준비, 대학생, 생명보험, 은퇴설계, 재무설계(5)	6
7	1인가구, 가계소득, 가계지출, 금융상품, 베이비붐 세대(베이비부머세대), 설명의무, 재무관리태도, 재무비율, 적합성원칙(적합성의 원칙), 종신연금, 펀드투자(11)	5
8	경제자원, 경제적 자원이전,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지식, 금융투자상품 대학생 소비자, 부채, 불안전판매, 연금보험, 영향요인, 위험감수성향, 은퇴, 은퇴자가계, 은퇴준비행동,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특성, 재무지식, 조절초점 (18)	4
9	가계경제구조, 가계특성, 개인재무관리, 경제적 요인(경제적 특성), 관계편익, 기 대효용함수, 다층노후소득보장, 단독가구, 베이비부머, 보험소비자, 보험지식, 부채부담, 삶의 만족도, 성향점수 매칭법(성향점수매칭), 세대 간 이전(세대간 자 원이전), 세대관계, 소득대체율, 소비지출패턴, 은퇴준비, 은퇴준비지수, 의사결	3

정, 일본, 자산배분, 자영업자, 장수위험, 재무관리기능, 재무관리지식, 재무설계 상담, 저축, 적자가계, 전환비용, 주관적 규범, 중년기, 충성도, 퇴직연금, 투자성향,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 화폐태도 (38)
--

주제어 중 연구내용(contents)을 주제어로 사용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14개의 contents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내용을 주제어로 사용한 경우 가장 많은 주제어는 금융교육 및 이해력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38개의 주제어가 70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은퇴로 묶을 수 있는 주제어들로 모두 34개의 은퇴관련 주제어가 51편의 논문에서 나타났으며 투자 및 보험과 관련된 33개의 주제어가 각각 44편과 43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표 4-2> 참조).

<표 4-2> 주제어(Keyword)분석 결과 - 연구내용(contents)

contents분류	금융교육 및 이해력	은퇴	투자	보험	재무문제, 재무상태 및 상담	부채	연금
주제어 수 (논문편수)	38(70)	34(51)	33(44)	33(43)	32(56)	29(46)	26(53)
contents분류	소득과 지출	위험	재무태도, 재무관리 행동 및 만족도	노후준비	가계포트 폴리오	저축	금융정보
주제어 수 (논문편수)	26(42)	25(40)	21(48)	16(22)	15(21)	15 (19)	15(19)

주제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내용(contents)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 결과 연구대상(<표 4-3> 참조)이나 분석방법, 분석자료, 적용이론을 주제어로 사용한 논문들도 다수 있었으며 주제어라고 하기 힘든 단어들(기타)도 상당하여(<표 4-4> 참조) 주제어 선정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주제어(Keyword)분석 결과 - 연구대상

주제어(Keyword)- 연구대상						
(가구원수별)		(한부모가구)		(재무상태별)		
1인가구, 단독가구, 독신자, 독신가구	10	여성가구주, 여성가구주 가구, 여성 한부모 가족	3	흑자가계		1
20-30대 미혼 독신가계	1	여성결혼이민자, 결혼 이민여성	2	건전가계		1
청년층1인 가구	1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1	적자가계		3
중장년층1인가구	1	남성 한부모 가족	1	유동성위험가계		1
중고령자 단독가계 가구주, 1인 노인가계, 노인단독가계,	4	남성가구주 가구	1	지급불능위험가계, 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		3

노년층 1인가구				불이행자	
비(非)일인가구	1	한부모 가계	1	부실가계	1
(생애주기별)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계	3
초등학생소비자	1	(소비자특성별)			
중학생	1	금융소비자	17	(직업상태별)	
청소년, 청소년 소비자	1	보험소비자	3	은퇴자, 은퇴자가계	5
대학생, 대학생소비자, 대학생 금융소비자	11	상속인	2	자영업자	3
N세대	1	보험수익자	1	맞벌이가구	1
X세대	1	투자자	1	임금근로자	1
중년기, 중년기 기혼남녀, 중년기가계,	5	가계	1	예비은퇴자	1
		가계재무관리자	1		
중노년기, 중·고령자, 중고령 금융소비자, 중·고령자가계, 중고령층 소비자, 중고령자 단독가계 가구주	7	펀드투자자	1	(국가)	
		소비자	1	일본	3
		비탐색자	1	한국	2
베이비부머, 베이비부머세대, 베이비부머 가계, 베이비붐세대, 일하는 베이비부머, 전기 베이비부머, 후기 베이비부머, 교육비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14	ROTC 임관장교	1	대만	1
				한·일 비교연구	1
		(공급자 대상)		한국과 중국	1
		금융회사	1	OECD 국가	1
		재무설계전문가	1		
		독립판매법인(GA)	1	(기타)	
예비노인	2	라이나생명	1	다문화가정	1
노인 소비자, 노년기가구, 고령자가계, 빈곤노인	4	보험회사	1	자녀양육기가계	1
전생가계	1				

<표 4-4> 주제어(Keyword)분석 결과 - 분석방법, 자료, 이론, 기타

주제어(Keyword) - 분석방법					
성향점수 매칭법, 성향점수매칭	3	구축효과	1	시나리오접근법	1
동적계획법	2	군집특성	1	실증분석	1
로지스틱 회귀분석	2	네트워크분석	1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	1
2변수 토빗모형	1	다수준회귀분석	1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1
AHP 분석	1	다항로짓	1	이중차이분석	1
Bivariate	1	델파이법	1	일치적 분석	1
cross national study	1	마르코프사슬	1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1

Probit Model	1	맥락적 접근	1	종단분석	1
SUR모형	1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1	종단연구	1
가중치	1	비교연구	1	패널분석	1
개인ALM분석모형	1	사례연구	1	표적집단면접법	1
개인고정효과	1	상호작용 효과	1	프로빗 회귀분석	1
경로분석모델	1	순차적 프로빗 분석	1	확률프로그래밍	1
주제어(Keyword) - 자료					
주제어(Keyword) - 자료		주제어(Keyword) - 이론(계속)		주제어(Keyword) - 기타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2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적 행동이론	1	연구, 유인, 유형화 연구, 연령, 다변화, 동향, 전문성, 하위요인, 실효성, 심리적 요인, 영향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재무적 특성, 재무적요인, 경제적 요인, 경제적 특성, 개인적특성, 만족도, 매개변수, 불만족 요인, 신체적 요인, 인지요인, 일반적 특성, 정서요인	
국민노후보장패널	2	근거이론	1		
재정패널조사	2	닷 내리기 효과	1		
펀드투자자조사	2	순향예측	1		
K-컨슈머 리포트	1	연체결정모형	1		
가계금융조사	1	이원고정효과	1		
가계자산조사	1	재무설계 도움추구모델	1		
사기피해자화 이론	1	평균-분산	1		
한국노동패널조사	1	프로스펙트 이론	1		
이론		합리적 행동이론	1		
기대효용함수	3	해석수준이론	1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	3	행동론적 접근	1		
행동재무학	2	행동재무 및 행동경제학	1		
게임이론	1	확률효과프로빗모형	1		

2) 주제별 연구성과

지난 5년간 가장 연구가 많이 수행된 영역은 재무설계의 실행으로 총156편(56.5%)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 뒤를 이어 재무상태 평가(37편, 13.4%),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총33편, 12.0%), 재무교육(총22편, 8.0%), 개인재무관리 관련 서비스(15편, 5.4%) 순으로 연구가 많았고, 재무복지에 관한 연구가 총 13편(4.7%)로 가장 적었다.

소분류에서는 은퇴설계와 상속에 관한 연구가 20.3%(총56편)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2009년(총46편, 17.0%)보다 다소 증가한 비중이다. 내용면에서도 지난 기간에는 노후준비 실태와 영향요인에 대해 주로 연구한 반면(최현자, 2010), 2010~2015년에는 구체적으로 특정 연금의 가입이나 활용이 개인의 재무상태를 얼마나 개선할 것인지(이창우, 2013; 주소현, 2011; 진희경, 2011; 김재호, 2013; 여윤경, 2013; 김현수, 2014; 양재환 외, 2014) 혹은 개인이나 가계의 은퇴설계 등과 관련한 행동적 특성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전귀연 외, 2010; 김희연, 2013; 이경우, 2013; 주소현, 2014), 나아가 개인이나 가계의 연금저축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효과는 어떠한지(김재호, 2011; 조재훈외, 2013) 등을 연구한 논문이 많았다. 즉, 문제인식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현상

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제인 재무관리 관련 시장 환경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로 「소비자문제연구」 및 「금융소비자연구」에서 관련 연구를 게재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체제, 감독 등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연구(도보은, 2012; 오기석, 2012; 이경주, 2012; 최철, 2012; 노태석, 2013; 윤석헌, 2014), 특정 산업이나 상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정책 및 법률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원승연, 2011; 홍진희 외, 2011; 김민정b 외, 2012; 곽관훈, 2013; 노태석, 2013b; 박세민, 2013; 맹수석, 2013; 정승환 외, 2013; 서은숙, 2014), 고령자나 여성가구주, 금융소외자(금융포용 관련) 등, 특정 계층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연구한 논문(황진자, 2012; 최철, 2013; 김종희, 2015) 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개인재무관리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학술적 측면에서 개인재무관리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연구(최현자, 2010; 정홍주, 2011)등도 있었다.

2000~2009년(총3편, 1.1%)에 비해 연구가 크게 증가한 분야는 재무역량(총18편, 6.5%)이다. 개인 및 가계를 둘러싼 금융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재무역량의 강화가 최근 사회적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역량이란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술, 재무관리태도가 결합되어 재무관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각 요인에는 개인의 경험이나 경제형편, 개인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보다 폭넓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김정현 외, 2012). 따라서 본 주제에는 재무지식, 기술 및 태도 등과 관련된 연구를 모두 포괄하였다. 전반적인 재무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 연구(김정현, 2011), 실제 측정을 수행한 연구(최현자, 2010; 김정현, 2012) 및 재무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수진, 2012; 공은희, 2011; 린쉬애, 2013; 2014), 최근 행동재무학의 흐름을 반영하여 재무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을 분석한 연구(백은영, 2011; 주소현, 2011; 임미자, 2012; 나혜림 외, 2013) 등으로 흐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무역량에 관한 연구가 양적인 면에서도 증가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다각도의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재무관리 관련서비스는 개인 및 가계가 재무관리를 함에 있어 선택지로 작용하는 금융시장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현자(2010)의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를 확장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시장에서 접하는 모든 상품이나 판매 관련 서비스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재무설계 및 상담에 대한 연구에만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재무관리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재무설계 및 상담에 대한 활용 현황이나 수요 요인에 대한 연구(곽민주, 2012; 주소연 외, 2012), 재무설계의 효과에 대한 연구(오종윤 외, 2012; 오종윤 외, 2014)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의사(조혜진 외, 2013; 김병태, 2014; 차경옥, 2015) 등이 주를 이루었고, 실제 재무설계 사례에 관한 연구(유현미, 2011)와 재무설계사와의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배성호, 2011) 등이 있었다.

저축과 투자(총31편, 11.2%)는 2000~2009년(총28편, 10.3%)과 거의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였고 내용 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행동경제학 이론에서 출발한 심리나 상황적 요인을 저축 및 투자행동에 도입한 연구가 크게 늘어났는데, 다수의 연구가 프레이밍(정용주 외, 2013; 총완천 외, 2015), 자기과신 성향(나혜림 외a, 2014), 조절초점(김영두 외, 2011) 등 다양한 행동재무학 이론이 투자행동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고 있었다. 위험성향 및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허경옥, 2010; 정순희, 2011, 장연주 외, 2012; 차경옥, 2013; 최철, 2013; 조혜진 외, 2014; 이성림 외, 2014; 민경실 외, 2014; 차경옥 2014)는 2000~2009년에 이어 여전히 많이 연구되는 주제였으며, 가계 저축 관련 연구(유경원, 2010; 이종의, 2010; 이윤호, 2011; 심영, 2012; 성영애, 2014)는 크게 줄어들었다. 저금리 상황으로 투자의 필요성

이 증가하면서 개인재무관리에서도 저축에서 투자로 주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재무관리 행동 연구는 총27편(9.8%)으로 2000~2009년에 비해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재무관리 행동에 대한 연구(이지혜 외, 2013)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개인파산자 등, 특정 계층의 재무관리 행동(송지용 외, 2014; 이종희, 2013)이나 특정 상품 영역에서의 금융소비자 행동을 살펴본 연구(이경희, 2012; 이경희, 2013; 진익, 2013), 가정 관리 측면에서 가계의 자원이전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고선강, 2011; 이윤정 외, 2011; 고선강, 2012a; 고선강, 2012b; 김연순 외; 김연순 외, 2014) 및 행동재무학 이론을 적용하여 심리적 상태가 재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김미린, 2010; 박주영, 2010; 오혜영, 2014) 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소비지출이나 구매행동(한수진 외, 2011; 윤하정 2012; 원종현 외, 2015), 정보탐색 행동(나종연 외, 2013; 한상만 외, 2015)에 관한 연구도 존재했다.

경제구조와 재무상태에 대한 연구는 총19편으로 6.9%의 비중을 보였는데, 전반적인 가계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지표화 하거나 재무비율을 통해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려는 연구(이은희, 2010; 양세정 외, 2010; 양세정 외, 2013)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정 계층의 재무상태를 심도 깊게 분석한 연구도 많았는데, 적자가계(양세정, 2010; 양세정 외, 2015), 저소득층 가계(김성숙, 2011; 심영, 2012), 중간소득계층 가계(최현자 외, 2012) 등 계층별로 가계의 재무구조를 살펴본 연구와 한 부모 가계(배다영 외, 2011; 고선강, 2014), 1인 가계(신민경, 2014), 20~30대 미혼가계(이수진, 2014) 등 가계구성원의 특성을 기준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한 연구도 눈에 띄었다. 본 카테고리에 대한 연구는 2000~2009년에 비해 그 비중은 줄었지만 다양한 계층을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과 지출관리는 2000~2009년(총 59편, 21.8%)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15편(5.4%)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시계열적 소비행태를 살펴본 연구(성영애 외, 2014)와 가구유형별 소비행태를 살펴본 연구(최홍철 외, 2014)가 있었으며, 단독가구(성영애, 2013; 전상민, 2013), 적자 가계(이종의 외, 2014), 노인가구(홍은실 외, 2011; 김시월, 2012; 김민정, 2012) 등 특정 계층의 소비지출 패턴을 분석한 연구, 교육비(문한나, 2010; 장윤옥, 2014), 의료비(윤정혜, 2010; 조용운, 2011), 식품비(이성림, 2014) 등 지출세목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그 흐름을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위험관리와 보험 관련 연구는 다소 증가하여 총13편(4.7%)의 연구가 집계되었다. 이는 보험 금융연구, 보험학술지 등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의 보유 상황 및 적정성, 혹은 보험 보유가 자산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허경옥 외, 2011, 김정동 외, 2013; 이현복 외, 2013; 송윤아, 2015)와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나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사영 외, 2012; 이경룡 외, 2012; 허경옥 외, 2012)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보험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정운영 외, 2014)도 있었다.

그밖에 연구의 비중이 다소 줄어든 영역은 신용과 부채(총14편, 5.1%), 주관적 재무복지(총 10편, 3.6%),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총16편, 5.8%) 등이다. 연구가 크게 미진한 영역은 교육효과 분석(총6편, 2.2%)으로 2000~2009년과 마찬가지로 연구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객관적 재무복지(총3편, 4.7%) 또한 연구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표 4-1> 2010년~2015년 상반기까지의 각 주제 및 학술지별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 현황

주제	소분류	FPR	소비자학 연구	소비문화 연구	소비자 정책교육 학회지	대한가정 학회지	한국가정 관리 학회지	한국가족 자원경영 학회지	소비자 문제연구	금융 소비자 연구	금융 연구 등*	2010 ~2015	2000 ~2009
재무 상태 평가	경제구조와 재무상태	4 (6.3)	1 (2.3)	2 (7.1)	1 (5.9)	1 (20.0)	3 (20.0)	6 (23.1)	-	1 (4.5)	-	19 (6.9)	31 (11.4)
	재무역량 (태도, 지식, 기능)	8 (12.5)	4 (9.3)	1 (3.6)	1 (5.9)	1 (20.0)	-	1 (3.8)	1 (6.3)	1 (4.5)	-	18 (6.5)	3 (1.1)
재무 설계 의 실행	소득과 지출관리	3 (4.7)	3 (7.0)	3 (10.7)	-	1 (20.0)	1 (6.7)	2 (7.7)	1 (6.3)	-	1 (2.6)	15 (5.4)	59 (21.8)
	신용과 부채	4 (6.3)	2 (4.7)	3 (10.7)	-	-	2 (13.3)	-	1 (6.3)	-	2 (5.1)	14 (5.1)	31 (11.4)
	저축과 투자	7 (10.9)	9 (20.9)	6 (21.4)	1 (5.9)	1 (20.0)	1 (6.7)	-	-	1 (4.5)	5 (12.8)	31 (11.2)	28 (10.3)
	위험관리와 보험	2 (3.1)	2 (4.7)	1 (3.6)	-	-	-	-	-	2 (9.1)	6 (15.4)	13 (4.7)	6 (2.2)
	은퇴설계와 상속	10 (15.6)	7 (16.3)	6 (21.4)	4 (23.5)	-	2 (13.3)	7 (26.9)	1 (6.3)	-	19 (48.7)	56 (20.3)	46 (17.0)
	재무관리 행동	5 (7.8)	5 (11.6)	1 (3.6)	1 (5.9)	-	3 (20.0)	7 (26.9)	1 (6.3)	1 (4.5)	3 (7.7)	27 (9.8)	18 (6.6)
재무 복지	주관적 재무복지	5 (7.8)	1 (2.3)	2 (7.1)	1 (5.9)	-	-	-	1 (6.3)	-	-	10 (3.6)	16 (5.9)
	객관적 재무복지	2 (3.1)	-	1 (3.6)	-	-	-	-	-	-	-	3 (1.1)	5 (1.8)
재무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	6 (9.4)	2 (4.7)	-	4 (23.5)	1 (20.0)	1 (6.7)	2 (7.7)	-	-	-	16 (5.8)	17 (6.3)
	교육효과분석	-	1 (2.3)	1 (3.6)	2 (11.8)	-	1 (6.7)	1 (3.8)	-	-	-	6 (2.2)	3 (1.1)
개인재무관리관련서비스 (재무설계및상담서비스)		6 (9.4)	3 (7.0)	1 (3.6)	-	-	-	1 (3.8)	2 (12.5)	2 (9.1)	-	15 (5.4)	8 (3.0)
금융소비자보호관련이슈		2 (3.1)	3 (7.0)	-	2 (11.8)	-	1 (6.7)	-	8 (50.0)	14 (63.6)	3 (7.7)	33 (12.0)	-
합계		64 (100)	43 (100)	28 (100)	17 (100)	5 (100)	15 (100)	27 (100)	16 (100)	22 (100)	39 (100)	276 (100)	271 (100)

2.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성과

1) 연구접근방법

276편의 연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구접근법은 총 213편(77.2%)의 연구가 수행된 '양적 연구'이다. 이어서 '규범적 연구'가 27편(9.8%)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 또는 규범적 연구 중 두 개 이상을 활용한 '혼합 연구'가 20편(7.2%)이고 '기타' 연구에는 국내외의 연구동향을 고찰한 연구, 금융 교육의 실태를 살펴본 연구, 지표 개발 연구 등이 해당되며 총 9편(3.3%)으로 집계되었다.

양적연구의 대부분은 '조사연구'로 202편(94.8%)을 차지하며 나머지는(5.2%) '실험연구'였다. 한편, '질적 연구'는 7편(2.5%)으로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는데, 질적 연구에 있어서는 '심층면접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2편, 그리고 '기타' 연구 방법에는 '사례연구'의 형식으로 진행된 연구가 4편, '문헌고찰'의 형식으로 진행된 연구가 1편이 이에 해당 한다. 즉 개인재무관리 영역에서 지난 5년간 수행된 연구는 대다수가 양적연구의 '조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이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규범적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는데 규범적 연구는 정책안 등의 활용 방안이나 관련 법제 연구, 금융소비자의 최적 선택과 관련한 연구,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등을 다룬 연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FPR」(4편)와 「소비자문제연구」(4편), 「금융소비자 연구」(9편), 「금융연구 등」(8편)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학술지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금융소비자연구」의 경우, 양적 분석만큼이나 규범적 연구가 많았는데, 다수가 법 체계나 정책, 정보공시와 같은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에 관한 연구였으며 변액보험,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 등도 다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등의 개편에 관한 연구(도보은 외, 2010; 윤석현, 2014), 최근 금융시장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이슈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서은숙, 2014; 곽관훈, 2013) 등이 있었다. 「금융연구 등」에서는 특정 연금에 가입하거나 특정 비용 체계를 택함으로써 소비자의 생활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분석하는 형태의 연구(양재환 외, 2010; 양재환 외, 2014; 강성호, 2010; 조재훈, 2013; 여윤경, 2013), 최근 몇 년간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불완전판매에 대한 연구(이윤호, 2010)나 소비자 대상 정보 개선에 관한 연구(박세민, 2013) 등이 있었다.

실험연구의 경우 주로 주식투자 행동 또는 보험 상품과 관련한 연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투자 행동에서의 성별효과를 남녀 투자자의 감정반응에 및 감정 조절을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임미자 외, 2010), 주식투자자의 긍정 감정조절전략 유형을 다룬 연구(임미자, 2012),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종신연금 가입의사를 담은 연구(주소현 외 2012), 보험 상품의 핵심설명서 개선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의 설명서의 여러 표현형태를 변경하여 소비자 이해력을 비교한 연구(황진태 외, 2014)가 있었다.

기타 연구에는 앞서도 밝혔듯이 국내외 연구동향이나, 평가지표 등을 개발한 연구가 있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재무 관리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종합적 고찰을 담은 연구(최현자, 2010), "금융소비자학"이라는 새로운 명명 하에 이에 대한 연구동향 및 과제를 제시한 연구(정홍주, 2011),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연구(김용덕 외, 2011),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지표개발 연구(최현자 외, 201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금융시장의 발전방향이 보다 소비자 지향적으로 설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연구들이며 실제 시장에서 활발히 적용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 2010년~2015년 상반기까지의 연구접근법 및 학술지별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 현황

연구접근법	FPR	소비자학연구	소비문화연구	소비자정책교육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자문제연구	금융소비자연구	금융연구 등*	합계(%)
양적연구	50	30	28	15	4	14	27	8	10	27	213(77.2)
조사연구	47	27	24	15	4	14	27	8	10	26	202(94.8)
실험연구	3	3	4	-	-	-	-	-	-	1	11(5.2)
질적연구	4	3	-	-	-	-	-	-	-	-	7(2.5)
참여관찰	-	-	-	-	-	-	-	-	-	-	
FGI	-	-	-	-	-	-	-	-	-	-	
심층면접	1	1	-	-	-	-	-	-	-	-	2(28.6)
델파이기법	-	-	-	-	-	-	-	-	-	-	
투사기법	-	-	-	-	-	-	-	-	-	-	
기타	3	2	-	-	-	-	-	-	-	-	5(71.4)
규범연구	4	1	-	1	-	-	-	4	9	8	27(9.8)
혼합연구	6	8	-	-	-	-	-	2	-	4	20(7.2)
기타(연구동향 등)	-	1	-	1	1	1	-	2	3	-	9(3.3)
학술지별 총 합계(%)	64(23.2)	43(15.6)	28(10.1)	17(6.2)	5(1.8)	15(5.4)	27(9.8)	16(5.8)	22(8.0)	39(14.1)	276(100)

2) 연구대상 (양적연구)

조사연구 총 202건 중 조사대상을 조사단위로 분석한 결과, '가계'가 70편(34.7%), '개인'이 132편(65.3%)으로 개인을 단위로 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조사대상을 '전체연령층'으로 한 연구가 107편(5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2편(10.9%), '노인(은퇴자·은퇴가구)'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7편(8.4%)으로 중노년층이 주요 연구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편(5.0%), 노인 단독가구, 여성단독가구를 포함한 '1인 단독가구' 9편(4.5%), '청소년' 7편(3.5%), '여성' 3편(1.5%)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단독가구 및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청소년, 여성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재무관련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연령을 기초하여 조사대상을 설정한 것과는 달리, 조사 목적에 따라 매우 특수하고 다양한 조사대상을 설정하여 진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기타' 집단으로 분류된 연구가 총 27편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타집단에 속한 연구대상은 ROTC 임관장교, 국내 재무설계 전문가, 금융 소외 가계, 부채 감소 또는 증가 가계, 전통시장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베이비부머, 펀드(주식)투자경험자, 30대 미혼자, 도시 부부가계, 파산자, 생명보험 가입경험자, 재무상담경험자,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가능자 등이 있다.

실험연구는 전체 11편 중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45.5%)이었고, '대학(원)생'이 3편(27.3%), '노인' 1편(9.1%), '기타' 2편(18.2%)으로 조사되었다. 프레이밍 효과에 따른 종신연금 가입의사에 관한 주소현(2012)의 연구 및 국내 금융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을 측정한 민경실, 송인성(2012)의 연구는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금융상품 광고의 속성프레이밍이 대학생들의 주식형 펀드 및 저축상품 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정용주, 주소현(2013)의 연구 및 프레이밍 효과가 한중 소비자 구입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총완청, 전호성(2015)의 연구는 '대학생'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기타 대상으로는 긍정 감정조절 전략유형에 따른 성과를 살핀 연구에서 '주식투자경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임미자(2012)의 연구 및 종신연금 관련 연구에서 '은퇴가계'를 실험대상으로 삼은 주소현, 김세완(2012)의 연구가 있었다.

3) 연구자료수집방법 (조사연구)

양적 연구 중 조사연구 방법을 택한 202편의 연구를 살펴보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1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75편(37.1%)인 것에 비해,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127편(62.9%)으로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무와 관련된 연구 내용은 특히 응답자 개인의 사적인 재무 정보가 많이 노출되므로, 개인적인 자료 수집방법으로는 무응답이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효율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2차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28편(36.3%)이고, '오프라인 조사'를 이용하는 연구가 25편(33.3%)으로 전반적으로는 온라인 조사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양상이었다. 한편, 온라인조사의 단점인 신뢰도 확보를 보충하기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연구도 8편(10.7%)로 조사되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재무관리 역량을 일반소비자와 비교 하는 연구(최현자 외, 2010), 가계부채특성과

<표 4-3> 2010년~2015년 상반기까지의 연구대상 및 학술지별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 현황

연구대상(양적연구)		FPR	소비 자학 연구	소비 문화 연구	소비자 정책 교육 학회지	대한 가정 학회지	한국 가정 관리 학회지	한국 가족 자원 경영 학회지	소비 자문 제 연구	금융 소비 자 연구	금융 연구 등*	계	비율(%)		
조사연구 전체		47	27	24	15	4	14	27	8	10	26	202	100.0		
조사 대상	가계	22	6	12	7	4	4	3	2	2	8	70	34.7		
	개인	25	21	12	8	-	10	24	6	8	18	132	65.3		
조사 대상	전체	26	15	11	7	1	10	5	4	6	22	107	53.0		
	노인(은퇴자), 은퇴가구	4	1	4	1	-	-	4	1	-	2	17	95	8.4	47.0
	중장년층(중고령자)	3	1	2	-	1	1	10	1	1	2	22		10.9	
	대학(원)생	3	2	-	1	-	1	-	1	2	-	10		5.0	
	청소년	2	-	-	3	-	-	2	-	-	-	7		3.5	
	여성	-	-	-	-	1	-	2	-	-	-	3		1.5	
	1인 단독가구	3	4	1	-	-	-	-	1	-	-	9		4.5	
	기타	6	4	6	3	1	2	4	-	1	-	27		13.4	
실험연구 전체		3	3	4	-	-	-	-	-	-	1	11	100.0		
실험 대상	전체연령층	1	1	2	-	-	-	-	-	-	1	5	45.5		
	노인	1	-	-	-	-	-	-	-	-	-	1	9.1		
	중장년층	-	-	-	-	-	-	-	-	-	-	-	-		
	대학(원)생	1	-	2	-	-	-	-	-	-	-	3	27.3		
	청소년	-	-	-	-	-	-	-	-	-	-	-	-		
	여성	-	-	-	-	-	-	-	-	-	-	-	-		
	기타	-	2	-	-	-	-	-	-	-	-	2	18.2		

부채 비율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 및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임은정, 2013), 중고령층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현황과 요구를 분석한 연구(백은영, 2013) 등이 그것이다. 반면, 학회지 중 「FPR」의 경우 1차 자료 사용 시 그 수집 방법을 논문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던 연구가 14편에 이르러, 연구자 본인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한 자료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자료수집 과정을 보다 상세히 기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반적으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무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한 연구가 총 28편(22.0%)으로 가장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펀드투자자조사(투자자서베이)’가 19편(1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도 13편(10.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또 다른 조사인 ‘(도시)가계(동향)조사’도 10편(7.9%)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그 뒤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이 9편(7.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이 6편(4.7%),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이 4편(3.1%)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기타 2차 자료로는 최근 많이 연구되기 시작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조사’가 있다. 소득세 환급액에 대한 가계의 소비반응을 본 연구(박종선 외, 2014)가 이를 이용하였다. 또한 미국자료인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를 이용하여 개인파산자들의 재무 행동을 살펴보거나,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라 예비적 저축을 살펴본(이종희, 2013; 이종희 2010) 연구도 있었다. 더 나아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데이터(이동걸 외, 2014), 금융감독원 민원자료(이경룡 외, 2012; 김사영 외 2012),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계좌데이터(이경희, 2012; 이경희 2013; 최영수, 2012; 송인옥, 2014; 우민철, 2014), 한국의료패널데이터(이현복 외, 2013)와 같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표4-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4> 2010년~2015년 상반기까지의 연구자료 및 학술지별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 현황

연구자료(조사연구)		FPR	소비 자학 연구	소비 문화 연구	소비 자정 책 교육 학회 지	대한 가정 학회 지	한국 가정 관리 학회 지	한국 가족 자원 경영 학회 지	소비 자문 제 연구	금융 소비 자 연구	금융 연구 등*	계	비율(%)		
자료 수집 방법	1차 자료	온라인조사	8	6	3	3	-	1	-	1	4	2	28	36.3	37.1
		오프라인조사	7	3	1	3	-	2	4	1	3	1	25	33.3	
		온, 오프라인 동시	-	1	2	-	-	2	3	-	-	-	8	10.7	
		N/A	14	-	-	-	-	-	-	-	-	-	14	18.7	
	2차 자료	가계동향조사	2	2	2	1	-	2	1	-	-	-	10	7.9	62.9
		가계금융(복지)조사	4	1	2	-	-	-	3	1	1	1	13	10.2	
		(국민)노후보장패널	5	4	4	2	1	1	5	1	-	5	28	22.0	
		노동패널	2	1	-	-	1	1	-	-	-	4	9	7.1	
		핀드투자자조사	3	4	4	2	-	1	-	3	2	-	19	15.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	1	-	-	-	3	-	-	-	4	3.1	
		복지패널	-	-	2	-	-	1	-	1	-	2	6	4.7	
	기타	2	5	3	4	2	3	8	-	-	11	38	29.9		
													75		
												127			

4) 연구자료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의 개인재무관리 관련 논문에서 조사연구를 수행한 논문중 양적분석을 한 연구를 대상으로 자료분석방법을 분류했다. 양적 조사연구 방법을 분류는 1)기술통계, 2)분할표, 집단간 비교 및 상관관계분석, 3)OLS회귀분석, 4)로지, 프로빗, 5)토빗, 6)요인분석, 7)경로분석과 나머지는 기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연구가 기술통계분석을 한 뒤 분할표분석이나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2개의 양적연구 논문에서 185편이 기술통계를 활용하였고, 이는 9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분할표, 집단간 비교 및 상관관계분석이 137편(67.8%), OLS 회귀분석이 80편(39.6%), 로짓·로지스틱, 프로빗이 73편(36.1%), 요인분석 25편(12.4%), 토빗 8편(4%), 경로분석 7편(3.5%)로 나열된다. 기타는 40편으로 19.8%를 차지하였다. 소비자 정책교육학회지를 제외한 모든 학회지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된 방법은 기술통계분석이다. 특히 「FPR」, 「소비자학 연구」, 「소비자문화연구」 세 학술지에서는 모든 연구에서 기술통계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회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PR」에 게재된 47편의 조사연구는 모두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분할표, 집단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이 활용된 연구가 34편(7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OLS 회귀분석이 21편(44.7%)의 연구에서 활용되었고 로짓·로지스틱, 프로빗이 10편(21.3%), 요인분석이 8편(17.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FPR에서 활용된 기타 자료분석방법에는 군집분석, 시뮬레이션, chow-test, 판별분석, ANCOVA, 공변량구조분석, 측정동일성 분석, 다중 집단 구조방정식모델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학연구」에서는 전체연구 27편(100.0%)에서 모두 기술통계가 수행되었으며, 분할표, 집단간 비교 및 상관관계분석도 21편(77.8%)의 연구에서 수행되었다. OLS회귀분석은 12편(44.4%), 로짓·로지스틱, 프로빗은 8편(29.6%) 수행되었다. 소비자학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인 기타 연구방법으로는 K-평균 군집 분석(3편)이 사용되었다.¹⁾ 「소비문화연구」에서도 기술통계는 전체 연구 24편(100.0%)에서 수행되었으며, 분할표, 집단간비교 및 상관관계가 19편(79.2%), 로짓·로지스틱, 프로빗이 10편(41.7%), 회귀분석이 5편(20.8%), 요인분석이 3편(12.5%)이 수행되었다. 소비문화연구에서는 다항 회귀분석보다 로짓·로지스틱, 프로빗으로 연구한 연구가 두 배 가량 많았던 것이 특징이었다. 소비문화연구의 기타 연구방법으로는 GLMM(일반화선형혼합모형)이 3 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chow-test, 군집분석, 한계효과, Mixture모델,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이 각각 한 번씩 사용되었다. 「소비자정책교육학회지」에서는 총 17개의 개인재무관리관련 논문 중 15편의 논문이 양적 조사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중 기술통계를 9편(60.0%)의 논문에서 사용하였고, 분할표, 집단간 비교분석, 상관관계분석은 13편(86.7%), 회귀분석은 6편(40.0%), 로짓·로지스틱, 프로빗은 6편(40.0%)에서, 요인분석은 1편(6.7%)에서 사용하였다. 기타 연구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가정학회지」의 조사연구 4편(100.0%)에서는 전부 기술통계 분석과 분할표, 집단간 비교 및 상관관계분석이 활용되었으며 OLS회귀분석 2편(50.0%), 그리고 로짓·로지스틱, 프로빗 분석 1편(2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토빗,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타연구방법은 시뮬레이션이 있었다. 「한국가정관리학회지」는 총 14편의 개인재무관리관련 논문 중 13편이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는

1) 소비자학연구의 기타 분석으로는 포아송회귀분석,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임의(랜덤)효과모형, Hausman test,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FIML(완전정보최대우도법), 다집단 분석, K-평균 군집분석, 군집 분석, 확률효과모형, 구조모형, 이행행렬, 안면타당도검사, 순서회귀모형이 있었다.

<표 4-5> 2010년~2015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분석방법 및 학술지별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 현황

자료분석방법	FPR	소비자학 연구	소비문화 연구	소비자정책·교육학 회지	대한가정 학회지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한국가족 자원경영 학회지	소비자문제연구	금융소비자연구	금융연구 등	전체
	47 (100)	27 (100)	24 (100)	15 (100)	4 (100)	14 (100)	27 (100)	8 (100)	10 (100)	26 (100)	202 (100)
기술통계	47 (100.0)	27 (100.0)	24 (100.0)	9 (60.0)	4 (100.0)	13 (92.9)	23 (85.2)	7 (87.5)	9 (90.0)	22 (81.5)	185 (91.6)
분할표, 집단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34 (72.3)	21 (77.8)	19 (79.2)	13 (86.7)	4 (100.0)	12 (85.7)	20 (74.1)	5 (62.5)	5 (50.0)	4 (14.8)	137 (67.8)
OLS회귀분석	21 (44.7)	12 (44.4)	5 (20.8)	6 (40.0)	2 (50.0)	6 (42.9)	10 (37.0)	3 (37.5)	4 (40.0)	11 (40.7)	80 (39.6)
logit·로지스틱, probit	10 (21.3)	8 (29.6)	10 (41.7)	6 (40.0)	1 (25.0)	3 (21.4)	15 (55.6)	4 (50.0)	3 (30.0)	13 (48.1)	73 (36.1)
tobit	-	5 (18.5)	-	-	-	-	-	-	-	3 (11.1)	8 (4.0)
요인분석	8 (17.0)	2 (7.4)	3 (12.5)	1 (6.7)	-	2 (14.3)	2 (7.4)	2 (25.0)	4 (40.0)	1 (3.7)	25 (12.4)
경로분석	2 (4.3)	2 (7.4)	1 (4.2)	-	-	-	1 (3.7)	-	1 (10.0)	-	7 (3.5)
기타	10 (21.3)	12 (44.4)	8 (33.3)	-	-	1 (7.1)	0 (0.0)	1 (12.5)	1 (10.0)	7 (25.9)	40 (19.8)

데, 그 중 대다수인 기술통계가 13편(92.9%), 분할표, 집단간 비교 및 상관관계분석이 12편(85.7%), 회귀 분석이 6편(42.9%), 로짓·로지스틱, 프로빗 분석이 3편(21.4%), 요인분석이 2편(14.3%), 그리고 기타로는 1편(7.1%)이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는 총 27개의 조사연구 중 기술통계가 23편(85.2%), 분할표, 집단간 비교 및 상관관계분석이 20편(74.1%), 회귀분석이 10편(37.0%), 로짓·로지스틱, 프로빗 분석이 15편(55.6%), 요인분석이 2편(7.4%), 경로분석이 1편(3.7%) 활용되었다. 기타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문제연구」는 총 8편의 조사연구 중 기술통계가 7편(87.5%), 분할표, 집단간 비교 및 상관관계분석이 5편(62.5%), 회귀분석이 3편(37.5%), 로짓·로지스틱, 프로빗 분석이 4편(50.0%), 요인분석이 2편(25.0%) 시행되었다. 기타로는 1편(12.5%)이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금융소비자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통계를 가장 많이 실시하였다. 총 10개의 조사연구 중 기술통계를 9편(90%), 분할표, 집단간비교 및 상관관계가 5편(50%), OLS회귀분석이 4편(40%), 요인분석이 4편(40%), 로짓·로지스틱, 프로빗 분석이 3편(30%), 경로분석과 기타 방법이 각 한편(10%)씩 차지하였다. 금융소비자연구의 기타 자료분석방법은 군집분석이 있었다. 금융연구 등은 총 조사연구수가 26편이었고, 그 중 기술통계가 22편(84.6%), 로짓·로지스틱, 프로빗 분석이 13편(50.0%), OLS회귀분석이 11편(42.3%), 분할표, 집단간비교 및 상관관계가 4편(15.4%), 토빗이 3편(11.5%), 요인분석이 1편(4.8%)를 차지하였다. 기타는 7편이 있었는데, 스트레스테스트, 성향점수매칭법, 이중차이분석, 오차수정모형, 공적분검정 등이다.

3. 적용이론 동향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론은 연구의 근간으로 기능하는 개념적 틀이다.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의 대상이 된 총 276편의 논문 중 66편(26.4%)에서 이론을 적용해 수행하였다. 66편의 논문에 적용된 이론은 총 41가지이며 그 중 상위 11개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총 2회 활용된 가계생산이론을 제외한 다른 이론들은 모두 1회씩만 활용되었다.

<표 4-6> 적용 이론 분석 결과 (상위 11개)

이론명	횟수
생애주기 소득가설(Life Cycle Hypothesis)	11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7
교환이론(Exchange Theory),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	5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is)	4
생애주기모형(Life Cycle Model), 프레임링 이론(Framing Theory), 포트폴리오 이론(Portfolio Theory), 심적회계 이론(Mental Accounting Theory)	3

개인재무관리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된 이론은 Ando와 Modigliani(1936) 등에 의해 제시된 생애주기 소득가설(Life Cycle Hypothesis; LCH)이다. 총 276편의 연구 중 11편에서 생애주기 소득 가설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주기 소득 가설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은퇴자 가계, 또는 고령자 가계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홍은실 외, 2011; 김민정, 2011; 백은영 & 정순희, 2012) 또한 가계 부채나 소득세 환급액 등 많은 개인재무관리 연구에서 생애주기 소득

가설을 적용하여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되었다.(백은영, 2012; 박종선 & 황덕순, 2014; 김시월 & 조향숙, 2014) 생애주기 소득가설에 이어 개인재무관리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이론은 계획된 행동 이론이다. 이는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 이론에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변수를 추가한 Ajzen(1991)의 이론으로 행동의 결정 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은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구조화한 모델임을 고려했을 때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모델의 다양한 변수 중 의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며(김미라 외, 2014; 이선형 & 김영훈, 2011), 두 번째는 결과적 변수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일반적으로는 저축 행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유소이 & 박주영, 2015; 하희라 & 이성림, 2014; 이종희, 2010) 교환이론과 기대효용이론은 전체 연구 중 동일하게 5편의 연구에서 적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우선 교환 이론은 인간의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환의 관점에서 자원 제공자와 자원 수혜자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이다. 교환 이론을 적용한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는 대부분 자원 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중노년기 부모와 자녀의 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선강, 2013; 이윤정 & 고선강, 2011; 김영순 & 고선강, 2014, 고선강, 2011; 고선강, 2012) 또한 교환이론을 적용한 모든 연구의 연구자에 고선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가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에서 해당 이론을 가장 활발히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기대효용이론은 행동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은 기대 효용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개인종신연금과 주택연금 등의 가치분석을 위한 연구(양재환 & 여윤경, 2010; 여윤경, 2013), 가계의 소비 및 저축 행태에 대한 연구(전병힐 & 박명호, 2015)와 위험 회피 성향(민경실 & 송인성, 2014) 등에 관한 연구에서 개념적 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초점이론과 프로스펙트 이론,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은 각각 4편의 연구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Higgins(1997)에 의해 제시된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은 개인의 동기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 그는 동기체계를 촉진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절 초점이 개인 재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이현숙 & 주소현, 2014; 김영두 & 하영원, 2011; 오혜영, 2014)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조절 초점을 독립변수가 아닌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수행한 연구 또한 확인되었다.(총원천 & 전호성, 2015) 프로스펙트 이론은 이른바 전망이론이라고도 불리며 Tversky & Kahneman(1979) 등에 의해 제시된 이론이다. 이는 위험성이 따르는 대안들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개인재무관리 연구에서도 위험과 관련한 개인의 행동 또는 태도 등을 탐구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조절초점이론을 적용한 두 편의 연구가 프로스펙트 이론을 공통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김영두 & 하영원, 2011; 오혜영, 2014), 자산에 있어서의 개인의 선택 위험성 인지에 관련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차경욱 & 정다운, 2013; 조혜진 외, 2014)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은 생애주기 가설에 심적회계와 프레이밍 등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Shefrin & Thaler(1988)에 의해 제시되었다.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을 적용한 연구로는 은퇴 관련 연구가 2편(김민정, 2012; 백은영 & 정순희, 2012) 이루어졌으며 가계의 소득과 부채에 관한 연구 또한 수행되었다.(박종선 & 황덕순, 2014; 백은영, 2012)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모형과 포트폴리오 이론, 프레이밍 이론과 심적회계 이론은 3개의 연구에서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Rowntree (1903)로부터 기원한 가족생애주기의 개념을 바탕으

로 한 생애주기모형은 학자에 따라 그 주기의 구분 기준이 상이하며 생애주기가 미치는 영향은 다방면으로 탐구된 바 있다.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소비와 저축 행태, 그리고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었다.(전병힐 & 박명호, 2015; 양재환 & 여윤경, 2010; 최홍철 & 최현자, 2014) 포트폴리오 이론은 특정 기대 수익 수준에 있어서 위험의 최소화, 또는 특정 위험 수준에 있어서 기대 수익의 최대화를 위한 투자 결정의 조합을 선택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한 개인재무관리 연구는 자산의 배분 행동에 대한 연구(최철, 2013; Choi, 2013)와 포트폴리오의 유형화 연구(조혜진 외, 2014)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프레이밍 이론과 심적회계 이론은 정통 경제학과 달리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전제로 하는 행동 재무학(Behavioral Finance) 관련 이론이며 이 또한 개인재무관리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행동 재무학의 내용 중에 프레이밍 효과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3편(주소현, 2012; 정용주 & 주소현, 2013; 총완천, 전호성, 2015), 그리고 심적회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3편(박종선 & 황덕순, 2014a; 2014b; 백은영, 2012)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프레이밍 이론과 심적회계 이론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프로스펙트 이론과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도 행동 재무학 관련 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기타 이론을 포함한 행동 재무학 관련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다양한 학술지 전반에 걸쳐 총 17편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이는 행동재무학 관련 이론의 하위 분류에 따라 적용한 내용에 있어서도 상이한 양상을 보였으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프로스펙트 이론과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을 적용한 이론 각 4편, 프레이밍 이론과 심적회계이론을 적용한 연구 각 4편, 그리고 자기과신 성향과 자기 통제 등 기타 변수의 영향을 상세히 살펴본 연구 또한 3편인 것으로 나타났다.(백은영 & 주소현, 2011; Grable & Joo, 2012; 나혜림 & 최현자, 2013). 이를 통해 행동 재무학 관련 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식하고 보다 실질적인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용 이론의 수적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학회지 별로 이론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제시한 연구의 수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문화연구」에서는 총 28편의 연구 중 16편(57.14%)이 이론을 적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지」가 15편 중 5편(33.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서는 27편 중 8편(29.63%), 「소비자학연구」는 43편 중 12편(27.91%), 「금융연구」 등에서는 39편 중 10편(25.64%)의 비율로 명확하게 이론을 적용하였고 「FPR」은 64편 중 11편(17.19%), 「금융소비자연구」는 22편 중 3편(13.64%), 「소비자정책교육학회지」는 17편 중 1편(5.88%)의 비율을 보였다. 「대한가정학회지」와 「소비자문제연구」에서는 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론 적용 연구의 편차는 각 학술지 별로 게재되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와 접근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된 점은 바로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여러 이론을 중복 활용해 진행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총 276편의 연구, 그리고 이론을 적용한 66편의 연구 중 중복적으로 복수의 이론을 활용한 연구는 16편에 이르렀다. 많게는 5가지의 이론을 적용하였으며(백은영, 2012), 3가지의 이론을 적용한 연구도 확인되었다.(백은영 & 정순희, 2012; 전병힐 & 박명호, 2015; 나혜림 & 최현자, 2013). 복수적으로 활용된 이론들은 이론 간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도 있었으나(박종선 & 황덕순, 2014; 총완천 & 전호성, 2015; 오혜영, 2014) 명확한 관계가 규명된 바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민경실 & 송인성, 2014; 전병힐 & 박명호, 2015; 여윤경, 2013)

또한 위의 표에서 제시된 상위 10개의 이론을 제외한 이론들은 대다수의 경우 각각 1번씩 연구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66편의 연구에서 이론을 적용하였으나 이론의 종류가 41가지라는 점에서도 매우 다양한 이론이 활용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상위 10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이론은 인지부조화 이론, 감정이론과 같은 심리학 분야의 이론에서 다변량재고조정모형, 마르코프사슬모형, 서비스품질평가모형, ALM 모델, 또는 몬테카를로 모델과 같은 방법론적 이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가 경제학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문의 이론을 적용하여 수행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개인재무관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인재무관리를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4. 연구자 및 공동연구 수행 현황

지난 5년간 총 276개의 개인재무관리 연구물 게재에 기여한 연구자는 총 257명이다. 1편을 게재한 연구자가 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2편이 29명, 3편이 14명 등이다. 10편 이상을 게재한 연구자는 총 8명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최현자²⁾이다. 총 30편의 공동연구 및 단독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공동연구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지표 개발 연구(최현자 외, 2013) 및 경제수명의 산정을 통해 한국 가계의 은퇴준비도를 측정하는 연구(최현자 외, 2012)가 대표적이다. 단독연구로는 2000년~2009년까지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을 수행한 연구가 있다. 그 밖에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 재무설계상담의 가계재무복지에의 영향 및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 행동경제학 이론을 이용한 연구에도 참여하였다.

두 번째로 개인재무관리 관련 활발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는 김민정³⁾으로 총 15편의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물을 주요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대표적인 단독연구로 은퇴자가계의 지출수준에 따른 노후자금 고갈가능성에 관한 연구(2010) 및 은퇴자가계의 소득수준과 소비지출수준 변화에 따른 소득적정성(2011)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지향적 자산관리서비스 전략-한국투자증권 사례연구(김민정 외, 2012), 보험업에서의 소비자 친화적 금융소비자 품질 평가-라이나생명 사례 연구(김민정 외, 2013) 등 개인재무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응용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표 4-7 > 최다빈도 논문 게재 연구자

순위	연구자	게재논문수(편)	순위	연구자	게재논문수(편)
1	최현자	30	6	성영애	10
2	김민정	15		이희숙	10
3	김시월	13		조향숙	10
4	주소현	12	7	고선강	9
5	조혜진	11		정순희	9
				차경옥	9
				허경옥	9

2)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3)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세 번째로 많은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김시월⁴⁾로 총 13개의 공동연구 및 단독연구를 수행하였다. 가계부채가 노인소비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5),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2013) 등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개인의 재무적 상태를 삶의 만족이나 심리적 상태 등과 연결지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단독 혹은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62.3%의 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연구로 저술되었다. 2인 연구가 46.0%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3인 연구도 10.9%로 나타났다. 1개의 논문에 최다 참여 연구자수는 7인이었는데, 금융소비자보호지표 개발(최현자 외, 2013)과 세대별 가계경제구조 분석(이은희 외, 2015)로 2편이었다. 전자의 경우 여러 금융소비자 전문가들이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어떤 항목으로 측정할 것인지 분석하였으며, 후자는 해방.전쟁세대, 베이비붐세대, 민주화세대, X세대, 에코세대 등의 다섯 개의 세대의 경제구조를 분석 및 비교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연구가 2010년 및 2011년에는 각각 46.7%, 45.5%로 절반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차 줄어 2014년에 26.7%가 되었다. 2015년 상반기의 단독 논문수 비중은 다시 증가하였으나, 이는 하반기 연구물까지 총합할 경우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Hojun Ji. et al(2010)는 JFCP⁵⁾의 2000~2009년 개인재무관리 연구 동향을 이전의 동일 저널에 대한 1990~1999년의 연구동향⁶⁾과 비교하면서 단독연구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개인재무환경의 복잡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자원의 공유나 다른 영역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최근의 경제. 사회적 화두라고 분석을 하였다. 10년의 기간적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개인재무관리 영역 또한 복잡한 경제.사회적 환경에 의한 협력적 연구의 필요성 증가 및 학문적 자원의 공유가 주요 흐름으로 보인다.

<표 4-8 > 참여 연구자수별 논문 현황

(단위 : 편, %)

저자수 (명)	1	2	3	4	5	6	7	소계
5년간	104 (37.7)	127 (46.0)	31 (10.9)	10 (3.6)	1 (0.4)	2 (0.7)	2 (0.7)	276 (100.0)
2010	14 (46.7)	12 (40.0)	3 (10.0)	- (0.0)	1 (3.3)	- (0.0)	- (0.0)	30 (100.0)
2011	20 (45.5)	21 (47.7)	2 (4.5)	- (0.0)	- (0.0)	1 (2.3)	- (0.0)	44 (100.0)
2012	23 (39.7)	24 (41.4)	6 (10.3)	5 (8.6)	- (0.0)	- (0.0)	- (0.0)	58 (100.0)
2013	22 (36.7)	28 (46.7)	5 (8.3)	3 (5.0)	- (0.0)	1 (1.7)	1 (1.7)	60 (100.0)
2014	16 (26.7)	30 (50.0)	12 (20.0)	2 (3.3)	- (0.0)	- (0.0)	- (0.0)	60 (100.0)
2015 상반기	9 (37.5)	12 (50.0)	3 (8.3)	- (0.0)	- (0.0)	- (0.0)	1 (4.2)	24 (100.0)

4)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5)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Hanna(1999)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개인재무관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기존 국내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어 분석과 연구방법 및 적용이론과 연구자를 분석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별 개인재무관리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과거 10년과 비교해 여러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은퇴설계 및 상속이나 재무역량, 재무관리 행동, 개인재무관리 관련 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는 그 연구의 양과 질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고, 새롭게 도입한 카테고리인 재무관리 관련 시장 환경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의 필요성 등이 연구 주제에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이다. 특히 재무관리 관련 시장 환경에 대한 연구는 개인재무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틀에 관한 분석이므로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반면, 소득과 지출, 신용과 부채, 재무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는 연구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소득과 지출은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하고 기본적인 연구주제이며, 경제적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 및 최근 서민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측면에서 신용과 부채 또한 활발히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재무복지의 경우, 개인재무관리 연구의 직접적인 목표가 개인 및 가계의 재무복지의 증진인 만큼, 어떻게 개념을 정립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보다 본질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사회와 개인 삶이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연구에 반영할 지도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객관적인 재무복지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연구자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재무교육과 관련하여, 금융교육이 최근 몇 년간 금융당국의 주도로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가 부진한 것은 상당히 아쉬우며, 특히 교육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크게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보인다. 미국의 법학자인 Willis(2008a)는 그동안의 금융교육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들이 자료의 신뢰성 문제, 연구설계의 실수, 측정의 오류 등을 갖고 있어, 금융교육으로 금융행동이 변화했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의 자기과신 성향을 부추겨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하므로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한다(Willis, 2008b). 손정국(2014) 또한 금융교육에 대한 자원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영국이 2006년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FSA)이 수년간 실시해 온 금융역량 강화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브리스톨대학에 검토용역⁷⁾을 발주한 결과 대부분의 강화 정책이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되어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금융역량 강화 사업이 행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편향(bias)을 교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용역⁸⁾ 결과,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편향은 금융역량 강화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선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낮기에 교육보다는 자문의 형태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손정국, 2014). 이러한 비판이 가능한 것은 1차적으로 체계적인 재무교육의 실행과 정교한 교육 효과 평가 모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재무교육만으로 개인재무관리를 둘러싼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재무교육이 재무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실행도구인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되, 재무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효과 평가 모델을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교육효과 분석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재무관리에 대한 연구가 특정 금융상품이나 금융소비자불만과 같은 특정 영역으로 더욱 세분화 되고, 한-미간 공동비교 연구도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가능한 2차 자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이며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7) FSA, Consumer Research 68 “Evidence of Impact: An Overview of financial education evaluations”, 2008.8 <http://hb.betterregulation.com/external/crpr68.pdf> 참조

8) FSA, Consumer Research 69 “Financial Capability: A Behavioural Economics Perspective”, 2008. 8 <http://www.fsa.gov.uk/pubs/consumer-research/crpr69.pdf> 참조

양적연구의 연구방법을 세분류 한 결과 연구방법은 연구자별 번역어가 다르고, 용어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 연구방법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테면, 고정효과 모형도 ‘개인고정효과’, ‘고정효과’, ‘개인고정효과모델’, ‘Fixed effects모형’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서술되어 같은 모형이라도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최근 소비자 행동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매 또는 비구매, 금융상품 가입 또는 비가입 등의 결과를 이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금융 연구 등* 그 밖의 학술지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분석 대상 논문 중 66편(26.4%)의 연구에서만 이론을 적용하고 있어 이론을 적용하지 않은 연구가 다수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로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연구자에 의해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관통하는 개념적 틀이라는 이론의 근본적인 기능을 고려해보았을 때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적용해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론이라는 명백한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시도들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키워드, 연구자, 연구방법, 그리고 적용 이론의 측면에서 개인재무관리 연구의 개략적인 동향 파악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키워드 분석 등 국내 동향 연구에서 수행된 바 없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으며 연구방법의 경우에는 이를 연구접근법, 연구대상, 연구자료, 자료분석방법과 같이 세분하여 해외의 동향 연구보다도 더욱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최근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내용분석의 대상이 되는 학회지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차별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인재무관리 내용분석 연구의 분석틀은 추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개인재무관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와 해외의 비교연구는 국내 연구 동향의 특이점을 파악하고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영역 등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활용된 자료의 범위가 최근 5년에 국한되어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물론 최현자(2010)에 의해 2000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가 분석된 바 있으나, 이는 본 연구에서 시도된 키워드, 연구자, 연구 방법 등의 영역에 있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용분석 연구의 자료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게재된 논문들을 살펴보았다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연구 주제의 동향 추이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의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 지나치게 중복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선강. (2013). 중년기 가정의 자산과 3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31-144.
- 고선강. (2012).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03-121
- 고선강. (2011).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57-175.
- 김미라, 황덕순, & 홍은실. (2014).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차용의도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65-84.
- 김민정. (2011). 은퇴자가계의 소득수준과 소비지출수준 변화에 따른 소득적정성. Financial Planning Review, 4(2), 83-109.
- 김민정. (2012). 자산의 단계적 사용에 따른 생활유지가능성과 조정가능 소비수준: 초과지출을 하는 1 인 은퇴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45-68.
- 김시월, 조향숙.(2014).단독가구의 부채 유형이 가계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7(1), 157-178
- 김영두, 하영원. (2011). 조절초점과 기대수익-위험 정보 구성이 금융투자상품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2(4), 103-134.
- 김영순, & 고선강. (2014).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 간 상호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도구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143-162
- 김용준, 여정성, 하영원(1999), “「소비자학연구」지 게재논문 분류와 분석 - 창간호(1990)부터 9권 4호(1998)까지,” 소비자학연구, 10(2), 113-131.
- 김판준, & 이재윤. (2010). 학술지 영향력 측정을 위한 h-지수의 응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269-287.
- 나혜림, & 최현자. (2013).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1), 27-60.
- 박종선, 황덕순. (2014). 가계 주 소득 원천과 소득 분위에 따른 가계 유형별 심적 회계 분석. 소비자학연구, 25(1), 115-143.
- 박종선, 황덕순.(2014). 소득세 환급액에 대한 가계의 소비반응. 소비문화연구, 17(1), 49-68
- 백은영, 정순희(2012). 베이비부머의 재정현황과 주택자산이 은퇴준비 정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5(1), 141-160.
- 백은영.(2012). 가계의 부채부담 및 부채문제. 소비문화연구, 15(3), 119-138
- 백은영, & 주소현. (2011). 우리나라 투자자의 자기과신성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4(1), 29-53.
- 민경실, 송인성. (2014). 국내 금융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 측정. 소비문화연구, 17(2),69-88.
- 손상희(2000), “소비자재무 및 복지 연구의 성과와 과제,”소비자학연구, 11(2), 103-121.
- 송인숙(2000), “1980년대와 90년대의 소비자학분야 연구의 추이와 사회적 기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18(1), 217-229.
- 양재환, & 여윤경. (2010).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종신연금의 효용가치 분석. 보험금융연구, 61(단일호), 105-141.
- 여윤경(2013). 주택연금의 가치분석, 한국증권학회지, 42(2), 341-371.

- 오혜영. (2014). 심사논문: 조절초점과 손실회피성향에 대한 처리 유창성이 금융상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융소비자연구*, 4(2), 63-93.
- 유경원, 2015, 최근 경제·사회 이슈와 가계금융의 중요성, 주간하나금융포커스 제5권 40호
- 유소이, 박주영.(2015).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주택모기지 선택의 영향요인 분석. *소비문화연구*, 18(1), 157-177
- 이선형, & 김영훈. (2011).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수도권 고령자의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169-188.
- 이종희. (2010). 소비자의 예비적 저축. *소비자학연구*, 21(4), 219-239.
- 이윤정, & 고선강. (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이현숙, & 주소현. (2014). 조절초점과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 *Financial Planning Review*, 7(2), 1-32.
- 전병철, & 박명호. (2015). 논문: 은퇴 후 소득대체를 하락이 가계의 소비 및 저축행태에 미치는 영향. *금융지식연구*, 13(1), 233-263.
- 정용주, 주소영.(2013). 금융상품 광고의 속성프레이밍이 대학생의 주식형펀드 및 저축상품 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6(3), 169-187
- 조혜진, 최현자, 박주영. (2014). 금융소비자의 자산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비교 및 유형화 연구. *소비자학연구*, 25(1), 173-198.
- 주소현.(2012). 프레이밍 효과에 따른 종신연금 가입의사. *소비문화연구*, 15(4), 81-99
- 차경욱, & 정다운. (2013). 개인투자자의 손실회피성향, 위험태도와 가계금융자산 보유 특성.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19-141.
- 최철. (2013).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 배분 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4(1), 297-325.
- Chul Choi. (2013). Financial Status and Behaviors of Female-headed Households in South Korea. *소비자학연구*, 24(2), 123-151.
- 최홍철, & 최현자. (2014).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3), 93-125.
- 하희라, & 이성림. (2014). 20~ 30 대 직장인의 은퇴저축행동 연구: 은퇴저축 재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0(2), 93-105.
- 홍두승. (2000).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 홍완천, 전호성.(2015).금융투자 상품 맥락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한중 소비자 구입 의향에 미치는 영향: 조절 초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8(2), 187-210
- 홍은실, 이민희, & 정운영. (2011). 고령자가계의 상속·증여 수혜경험여부별 지출규모와 영향요인. *Financial Planning Review*, 4(1), 55-84.
-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s: Aggregate Implication and Test, *American Economic Review*, 53, 55-84.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Grable, J. E., Park, J. Y., & Joo, S. H.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Financial Knowledge Confidence Bias and Financial Behavior. *Financial Planning Review*, 5(1), 113-132.

Higgins, E. Tory(1997), "Beyond Self-Regulatory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12), 1280-1300.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XLVII (1979), 263-291.

Rowntree, B. S.(1903),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Geistfeld, L. V., & Key, R. (1986). A Decade in Perspective 1975-84: Focus and Trends in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JournalofConsumerAffairs*,20(1),65-76.

James, R. & Cude, B. (2009), " Trends in Journal of Consumer Affairs Feature Articles: 1967-2007,"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3(1), 155-169

Jane Schuchardt, Dorothy C. Bagwell, William C.Bailey, Sharon A DeVaney, John E. Grable,Irene E. Leech, Jean M. Lown, Deanna L.Sharpe, and Jing J. Xiao (2007), "Personal Finance: An Interdisciplinary Profession,"*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18(1),61-69.

Ji, H. et. a l(2010), " Two Decades of the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21(1), 3-13.

Sherman, H. et. al (2011), " Content analysis of Financial Services Review," *Financial Services Review*, 20, 237-251.

Kahneman D., 2003, *Maps of Bounded Rationality: Psychology for Behavioral Econom- ics*, 93 AM. ECON. Rev. 1449, 1451

Herbert A. Simon, 1955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69, No. 1 (Feb., 1955), pp. 99-118